

부모-교사-영유아 마음성장 프로젝트 ‘마라톤’ - 건강한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다 결과보고서

울산시립 연구형어린이집 바다빛반 이선희, 최지혜

□ 운영 개요

○ 어린이집 현황 및 특성

1. 어린이집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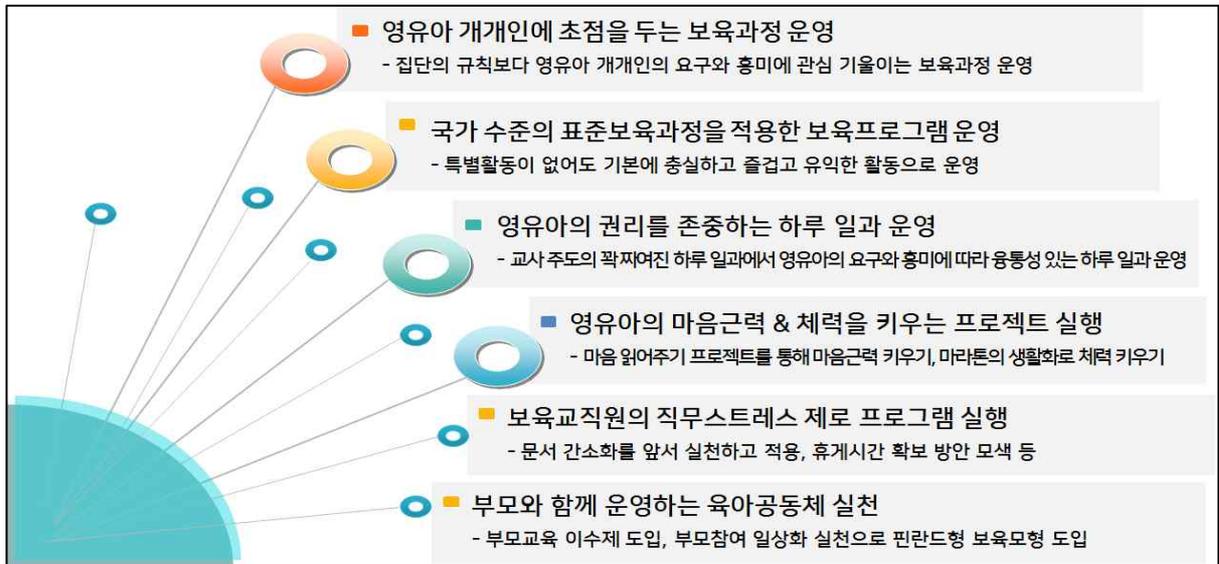
- 2017. 01. 01. 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2017. 01. 01. ~ 2019. 12. 31.)
- 2017. 07. 27. 어린이집 인가
- 2017. 09. 01. 제1회 입학식 (30명)
- 2018. 02. 23. 제1회 수료식 (30명)
- 2018. 03. 02. 제2회 입학식 (49명)
- 2019. 02. 22. 제1회 졸업식 (14명)

2. 어린이집 소재지 및 환경

- 소재지: 울산광역시 동구 바드래1길 61, 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별관
- 면적: 480.14㎡

1층	풀빛반(만0세반), 강빛반(만1세반), 별빛유희실, 원장실·양호실, 화장실 등	
2층	산빛반(만2세반), 바다빛반(만3,4세반), 솔빛도서관, 교사실·자료실, 조리실 등	
옥상	하늘빛정원	

3. 어린이집 특성



○ 참여목적(기대효과)

- 마라톤을 통한 부모-교사-영유아의 건강한 신체와 인성을 가질 수 있다.
- 마라톤 참여를 통해 부모와 교사, 자녀간의 소통을 기대할 수 있다.

□ 운영 내용

○ 어린이집 진행과정 및 운영방법

- 1) 계획 및 논의 - 원장, 교사 및 센터 직원과의 간담회 및 회의 실시
- 2) 자료 조사 - 자료 검토 및 계획 세우기
- 3) 이야기 나누기(대집단활동)
 - 마라톤 진행방법과 메달, 쿠폰 전달하는 방법을 유아와 함께 이야기 나누기
- 4) 마라톤 준비물 만들기
 - (유아) 현수막, 메달, 쿠폰 만들기
 - (교사) 마음을 나누는 zone 간판, 응원 팻말, 포토존, 방명록 만들기
- 5) 마라톤 진행
 - 전체 인사나누기 → 인사말 및 주의사항 안내 → 마음을 나누는 체조 후 출발 → 마음을 나누는 zone 미션 수행 → 완주선 도착 → 방명록 작성 및 휴식 → 마음을 나누는 메달 및 쿠폰 증정식 → 마무리 인사 및 귀가
- 6) 평가 및 보완 - 참석자 평가서 작성 후 보완점 반영하기

□ 운영상의 어려움

○ 내/외적요건

- 주말 오전이라 명덕저수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 메달을 만들 때 끈을 유아가 다양한 재질, 두께, 색 등을 직접 골라서 만들
- 명덕저수지에서 마라톤 코스를 한 바퀴 도는 것으로 정함
- 코스 중 땅이 고르지 못한 곳과 가파른 계단이 있음
- 마라톤 행사에 필요한 준비물(메달, 현수막, 쿠폰)을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 소개하고 자유놀이 시간에 스스로 선택하여 준비물을 만들
- 마라톤 행사를 10월로 계획하였으나 어린이집 사정상 11월에 진행하게 됨
- 마라톤 행사는 유아들과 가족들이 함께 참석하는 행사로 진행됨

○ 시행착오

- 행사장소 내 주민들의 이동에 불편과 피해를 주지 않게 고려하다보니 진행 물품 중 마음을 나누는 zone 간판을 달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음
- 메달 끈은 목에 닿는 것이어서 재질을 선별해서 부드러운 것을 골랐으나 행사 당일 목걸이를 걸고 비비거나 당기는 것을 반복한 유아들 중 한 명의 유아 목에 상처가 생김
- 명덕저수지는 어린이집 부모님과 유아들에게 익숙한 장소이나 완주코스 중 갈림길이 나올 경우 어느 방향으로 가야하는 지에 대한 안내가 필요했음. 앞의 가족과의 거리가 차이가 나면 교사의 안내가 필요한데 그 타이밍에 해당 장소에 교사가 없는 경우도 있었음
- 회의 후 본부석에 구급상자를 배치하기로 정하였으나 행사 특성상 달리다가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구급약을 추가로 3set 더 준비함
- 결석을 하지 않는 유아들은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소개를 듣고 자연스럽게 자유놀이 준비물을 만들 수 있으나 소개를 하는 해당 일에 결석한 유아는 놀이 시간에 마라톤 준비물 만들기에 관심이 없음. 현수막 만들기를 할 때 전체 유아들이 이미 거의 완성 해놓은 상태여서 결석한 유아가 자신이 꾸며 보고 싶은 것을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줄어들

- 마라톤 당일에 다행히 날씨가 춥거나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았으나 몇몇의 부모님들이 마라톤을 할 때는 춥지 않았으나 땀을 흘리고 난 후에는 땀이 식을 때 춥게 느껴진다고 11월보다 더 일찍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음
- 행사 날짜에 부모 중 어머니나 아버지가 못 오는 경우가 생김. 행사 참여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마음을 나누는 zone에서 다른 가족들이 함께 하는 것을 보면서 일부 가족의 부재가 있는 경우 유아들이 눈치를 보거나 걱정을 하는 모습이 보임

○ 극복 및 해결 방안

- 간판을 달 때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고려함. 간판의 역할은 해야하므로 어린이집에 구비되어 있는 고깔과 막대를 사용하여 마음을 나누는 zone 간판을 정자 입구 쪽에 세워서 게시함 (계단 및 정자 사용에 불편함 없도록 게시)
- 최대한 부드러운 재질의 끈을 선택하고 리본끈 대신 천을 잘라서 목걸이 끈으로 대체해도 좋을 듯. 리본 끈을 사용할 경우 마찰이 계속 되면 목에 상처가 생길 수 있음을 유아와 부모에게 사전 알리기가 필요함
- 행사 장소가 모두에게 익숙치 않을 경우에는 코스별 안내가 필요함. 갈림길에 교사를 배치하여 수시 안내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면 화살표를 달거나 바닥에 붙여서 진행방향을 표시해야 할 것 같음
- 실외용 구급상자는 본부석에 두고 비상용 구급상자를 마라톤 코스에 있는 교사들 세 명이 소지함. 행사 중 넘어지는 유아가 발생하였고 해당 가족은 연고나 밴드가 없었음. 근처에 있던 교사가 구급상자를 소지하고 있어서 즉시 응급처치를 해줄 수 있어 유익하였음
- 결석한 유아를 위해 개별적으로 행사에 대한 소개를 꼭 해주어야 함. 특히 단체 작품인 현수막 만들기는 계획, 준비를 미리 하여 결석한 유아가 없을 때 해야 자신이 꾸미고 싶은 부분을 선택하여 활동 할 수 있음
- 9~10월 중에 행사를 진행하면 땀이 식어도 춥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음
- 가족 전체가 참여 하지 않은 유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교사들의 단어 선택과 진행 중 배려와 주의가 필요함. 엄마, 아빠 위주의 행사가 아닌 교사-부모-영유아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 운영 결과

○ 진행 결과



전체 인사 및 마음을 나누는 체조, 마라톤 진행



마음을 나누는 ZONE 미션 진행



마음을 나누는 메달 및 쿠폰 증정식 및 마무리

○ 기타 결과

■ 유아의 변화

- 유아들의 체력을 기르기 위해 매일 실외활동 시 체조와 달리기를 실시함. 신학기 때의 체력이었다면 명덕 호수 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무리가 있었을 테지만 그동안 체력이 향상되어 예상보다 빨리 완주선에 들어 올 수 있었음
- 평소 달리기를 할 때는 서로 먼저 달려가려 하거나 1등에 집착하였으나

마라톤을 준비하면서 완주에 목표를 두고 활동을 함. 마라톤 당일 1등이 아닌 가족과 함께 걷고, 달리는 자체에 흥미를 보임

■ 부모의 변화

- 산책을 하거나 산을 오를 때 금방 지치고 안아달라고 하던 유아들이 매일 달리기와 체조를 한 이후에는 좀 더 먼 거리를 스스로 걸어 갈 수 있다고 하고 부모님을 재촉하기도 한다며 현재는 오히려 부모님들이 유아를 따라가기 힘들다고 함. 어린이집 활동을 가정에서도 부모와 함께 꾸준히 해보아야겠다고 함
- 마라톤 장소가 명덕 호수 공원임을 알고 유아와 부모가 함께 미리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짐. 유아와 부모가 어린이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

□ 일반화 방안

○ 개별 어린이집에서 적용시 유의점

- 행사에 참여하는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마라톤이 진행되는 장소 및 전체 트랙 길이를 고려해야 하고 이를 지역사회와 미리 협의해서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야외에서 진행됨에 따라 날씨가 중요하므로 우선 시 계획을 따로 세워야 할 것임. 마라톤 중간에 도입할 수 있는 활동(마음을 나누는 zone)은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음

○ 운영 노하우

- 아이들의 꾸준한 체력 향상을 위해 매일 바깥놀이 시간을 활용하여 체조 및 달리기를 함. 행사가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학부모들에게도 알려 개별적으로 연습할 유아들은 꾸준히 가정에서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함
- 유아들이 부모님을 생각하며 직접 고르고 꾸민 ‘마음을 나누는 쿠폰’을 통해서 체력성장과 더불어 마음도 성장하고 가족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됨

□ 특이 사례 및 소감

■ 학부모 소감

가을의 쾌청한 날씨를 느끼며 가족과 즐거운 추억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마음나누기 행사를 마련해 주어서 함께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가까이에 살고 있어도 이런 행사 전에는 아이와 끝까지 한 바퀴를 돌아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경쟁이 아닌 모두가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달리는 것이 보기 좋았습니다.

■ 교사 소감

구슬땀을 흘리며 달리기를 할 아이들과 바쁜 시간을 내어 참가해 주실 부모님들을 떠올리며 힘을 내어 행사 계획과 준비에 참여했습니다. 행사 준비를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원장님 및 동료 교사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었습니다. 행사날 아침 조금은 쌀쌀하여 아이들의 컨디션이 걱정이 되었지만, 제각각 밝고 장난기 어린 얼굴 혹은 아직은 잠이 덜 깬 얼굴로 이제껏 연습한 실력을 뽐내러 나온 아이들을 보니 왠지 모르게 기대가 되고 기분이 상쾌해졌습니다. 따라잡기 힘들만큼 열심히 부모님의 손을 이끌고 달려 나가는 아이들에게 고마웠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마음 나누기 존에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아이들과 마음을 나누어 주신 부모님들께도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부모님들이 작성해 주신 방명록을 읽으며 주말 잠깐의 함께하는 시간으로도 부모님과 아이들이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에 교사로서 뿌듯했습니다.